

“산재 처리 지연, 더는 못 기다린다”

27일,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가 6월 26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산재 처리 지연 규탄 및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금속노동자 1천여 명이 모였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열며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다치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 이게 왜 안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손보고, 노동시간 연장하고, 무제한 파견을 열고, 산재보험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물러설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금속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산재 지연 피해 현장 증언,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과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근로복지공단 합의 면담을 마친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항의 면담을 통해 산재 처리 기간 60일 이내 합의 이행, 추정의 원칙 확대, 선보장 후평가 세 가지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검토, 논의해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로 답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투쟁을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며 “힘들지만 질기고 빠르게 싸우자”고 투쟁 결의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근로격계질환 산재 60일 이내 처리 합의 이행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선보장 후평가 등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2021년 7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로격계질환의 경우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는 데 금속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근로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은 146

일로 더 늘었다. 금속노조가 결의 대회를 개최한 이유다.

금속노조는 “산재 처리 기간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며 산재 피해 노동자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며 “생계 위협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작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산재 피해 노동자가 처리 지연으로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인근에 요구를 담은 붉은 띠를 묶는 상징의식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더 발전한 제주4.3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기고] 제주4.3자주평화순례 해설사를 마치며



제주4.3 자주평화순례 해설사를 지원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분노, 슬픔, 억울함, 미안함’ 등 여러 감정을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1박 2일 해설사 교육을 통해 접하게 된 제주도의 아픈 진실은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결의를 갖게 했으니까. 해설사 교육을 마치고 제주 4.3 자주평화순례까지 주어진 시간은 한 달여 남짓. 머릿속에 담아둔 정보는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조합원들에게 꺼내어 놓을지가 가장 큰 숙제였다.

제주 4.3 자주평화순례 3일 전, 해설 시연을 위해 제주로 향했다. 3일간의 해설 시연을 하며 무수히 낙담, 후회, 자기반성을 했다.

해설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설을 준비하는 동지들 덕분이었다. 하루 2~3시간도 자지 않고, 원고를 다듬고 해설 연습을 하는 동지들을 보며 생각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하는 것일까?’

드디어 제주 4.3 자주평화순례 당일. 어찌 보면 이날이 오히려 답답하니 편안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초조하던 마음은 한나들 제주로 도착하는 반가운 동지들을 보니 어느새 사라졌다.

해설사를 교육해 주신 강사님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건 막 버스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중 4.3항쟁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 있게 해설합시다!”

그렇게 진행된 순례가 끝나던 순간, 후련하다는 느낌보다 준비한 것을 전부 전달하지 못한 거 같아 무척 아쉽다고 생각했다.

기행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후, 기행에 참가했던 조합원에게서 몰랐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스스로 제주 4.3항쟁에 대해 더 공부해 봤다는 동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단함이 전부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두 달이 훌쩍 지난 6월 중순, 제주4.3자주평화순례 해설사 평가 수련회에서 해설사 동지들을 다시 만났다. 고단한 과제를 함께 돌파해온 사이라 그런가?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었고,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동지들, 약속대로 우리 내년엔 좀 더 발전한 금속노조 제주 4.3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투쟁합시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김태형 금속노조 경기지부
말레동현화성지회 수석부지회장